



다시 말해,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말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프라에 세금을 부과해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버리면 앞서 언급한 모든 시장들이 수축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독점과 정부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성공적인 기업이 너무 거대해진 후 다른 기업들을 모두 삼켜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디즈니를 포함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의 가입자 1인당 비용은 구독자가 적은 기업들에 대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라면 거대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특정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독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장하며 이를 '자연 독점'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소수의 정치인들은 만일 이것이 필연적인 현상이라면, 전력 산업처럼 국가가 나서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 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아무도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자유시장과 경쟁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아름답다. 시장은 어떠한 규율 없이도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트리밍 시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본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fee.org/articles/what-streaming-services-teach-us-about-economics/>